

# 침해당하는 기독교 교육의 자유



김승욱 (발행인)

(사)기독교세계관 학술 동역회 공동회장.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D.(경제사)를 받고 UNDP국제 전문가와 중앙대 동북아 연구소장,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를 ‘침해당하는 기독교교육의 자유’로 잡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수한 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석유도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도 매우 빈약한 한국의 유일한 자원은 풍부한 인력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맹률이 낮고, 교육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국가가 가난해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시절에 사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변영에 교회와 기독교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사실

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육의 자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의 형평성을 이유로 평준화 정책과 등록금 규제를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학들은 학교 운영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학교는 커리큘럼조차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학생 선발권도 없이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가치를 담은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각종 대안교육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아



교육까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정부가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지시하고 있어 점점 기독교 교육을 할 자유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도 교육의 다양성을 상실하고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죽인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획일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OECD는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를 합니다. 2008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2013년에 처음 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25~34세 청년들의 평균 역량은 OECD 33개국 중에서 언어능력

은 최상위권이고 수리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은 중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우수한 청년들의 역량은 비교 대상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최상위권 청년들의 언어 능력은 25위, 수리 능력은 29위, 문제해결 능력은 26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1%에 속하는 청년들의 역량은 언어 능력 4위, 수리 능력 6위, 문제해결 능력 6위로 상위 청년들과는 정반대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역량은 중간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양성이 부족한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규제 때문에 도리어 우수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갔고, 고졸자의 8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대졸자



가 많아서 역량 분포의 중간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청년들은 결국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는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창업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한국은 직장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누구나 피고용인으로만 한 평생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창의적이고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달의 인물'에서는 기독교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대안협의회 대표간사를 역임한 서울여대 김선요 명예교수를 소개합니다. 그가 안식년에 미국 칼빈 칼리지에 방문하여 기독교 교육

의 중요함을 느끼고, 한국 사회에 기독교 대안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소개했습니다.

특집 주제 칼럼에는 먼저 정의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 학교가 속한 삼산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남훈 이사장의 '기독교학교 정체성 회복 절실하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중학교 무시협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로 인해 사립학교들이 단일성 교육으로 회귀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거나 건학이념 구현의지가 약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광고등학교의 김철경 교장은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율형 사립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봉사하면서 기독교 전인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부가 유아 과정과 유치원 과정의 교과까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정희정(산업교육학부 유아보육과) 교수가 누리과정 제정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유명한 1925년의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한 스콧스 재판(Scopes trial)과 요즘 한국의 누리과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미션스쿨의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홍익대 교육학과의 김종훈 교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께 다소 생소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란 급격하게 변화되는 미래사회를 살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역량, 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이 6가지 핵심역량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량중심교육과정의 문제점은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학교 교육이 담아내야 하는 지식의 성격이 계속 변해야 한다는 관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교육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이 교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성 교사의 글에서는 기독교 교

육의 또 다른 측면인 기독교 동아리 등 종교 활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교육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종교차별 예방교육 메뉴얼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현장에서는 종교동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일이 현행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호에서도 미국 CRC 교단의 신앙지침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의 내용 중에 '창조'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석대 이우제 교수의 '오늘의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 5번째 연재가 계속되며, 최충희 작가의 수필이 이어집니다. 이번호에는 이웅배 작가의 '사흘 후'라는 작품을 소개했으며, 숭실대 남정욱 교수는 영화 '퓨리'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피터 드러커의 기업론'을 연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생산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조현민 사건에서 보듯이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반 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를 통해서 기독교적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기 위해서 독자 후기를 모집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좋고, 특정 칼럼에 대한 반론도 좋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본보를 통해서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